

방화 가능성 짙은 여수 화재참사, 국가배상은

안전관리 소홀 등 따져 배상 규모 결정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가 방화로 비롯될 가능성이 무척 높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사상자들에게 대한 국가배상 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사고 책임이 줄어들 뿐이지만 사무소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가 배상규모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방화, 관리책임 합수따라 배상규모 결정 =경찰은 외국인 보호실에서 나온 물품이나 주변인 진술 등에 미뤄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 김모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점, 비상관리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라이터 등 물품이 반입된 점 등 출입국관리소 측에 책임이 묻어날 부분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그 일차적 책임은 불을 지른 사람이 지겠지만 국가도 공동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의 비율은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 지를 비교해 결정된다.



13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남푸쿠이(南賦魁) 주한중국대사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가배상법 적용키로=법무부는 13일 화재 조사결과 국가의 사고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피해자들을 배상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망자의 경우, 생존시 취득가능한 기간만큼의 평균임금과 장례비 등을 유족이 지급받고 부상자는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른 임금손해

분, 요양비 등을 받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위자료를 받는다.

▷외국인 상호보증 여부 등 변수 남아=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의 법률에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조항이 있어야 배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국가간 상호보증 문제는 외국인이 피해를 봤어도 당사자국에서 관련 조항이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수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과정에서도 변수가 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중국의 경우 내국법에 외국인 상호보증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국인 피해자들은 일단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피해자가 배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으며 국가 기관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을 경우 사상자 측에서 배상절차와 별도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여수박람회, 이제 외교력에 달렸다



홍행기 사회2부 차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8·9일 이틀간 여수와 남해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이 막을 내렸다.

새벽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온몸에 맞으며 공원에서 환영깃발을 흔들고, 심포지엄이 열린 회의실을 연일 가득 채웠던 여수시민들의 성원은 심포지엄에 참가한 BIE(세계박람회 기구 사무국) 회원국 대표들에게 박람회 유치의지를 확인 시켜줬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으로 정해진 여수박람회 주제를 매우 높이 평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서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젠민 BIE총회 의장은 8일 개막식 축사와 9일 기자회견에서 "여수가 선정한 주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혔다.

또 세계적 석학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해양과 연안을 다루려는 여수의 박람회 주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유치 경쟁국인 '모로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 최종 유치 투표에서 모로코가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리니오 브루토메소 교수는 심포지엄 개막일인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여수의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로코 당해는 여수보다 규모가 더 큰 도시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려면 BIE회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로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역민의 지지와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계 박람회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전체 BIE회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결국엔 국가간 '로비'를 가장 잘 한 국가가 최종 게임(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박람회 유치과정에 참여했던 리니오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지역민의 성원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박람회유치에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되새기게 해준다.

'로비'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목표를 겨냥한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후 교섭이야말로 '필수·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로세르 탈레스 BIE사무총장이 심포지엄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박람회 주제는 이미 훌륭하다"면서 "기업과 단체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의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외교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redplane@kwangju.co.kr

"이동사고 손실비용 2조원"

보건복지부, 이화여대 용역조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화여대 의대에 용역 의뢰해 제출받은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손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천 193명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2조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2002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2.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7.9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태극기 거꾸로 휘날리며"

盧대통령 남유럽 순방 특별기 국기 잘못 게양 '빈축'

지난 1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과 바티칸 교황청, 이탈리아 순방을 위해 서울 공항을 이륙했던 아시아나항공 특별기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던 것으로(사진) 뒤늦게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특별기의 조종석 위에 걸렸던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승무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원래 대통령이 해외방문을 떠나기 전 특별기의 조종석 위에 태

극기와 청와대기를 걸었다가 이륙직전에 내리는데 청와대기는 제대로 게양됐고 태극기는 직원의 착오로 거꾸로 걸렸다"며 "이 특별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태극기가 제대로 게양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유럽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가 전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순방기록(23차례에 걸쳐 37개국 방문)과 '타이'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총리 "여야정 협의체 추진"

한명숙 국무총리는 13일 주요 민생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러 정치상황의 변화로 입법환경이 어렵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제선 대표간의 민생회담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 협의체법을 계속 가동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5년 전통의 최고당 인력만이 연구 개발한

장생·무늬 오가미 식품

최고급 원산지산물 특산물 수산물 특산물 무늬 오가미 식품 연구개발원

TEL 062-385-3303 362-6900

세탁년 세학기 "세탁SET" 특별전

세탁년 세학기 "세탁SET" 특별전

세탁년 세학기 "세탁SET" 특별전

세탁년 세학기 "세탁SET" 특별전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소리없는 편안함

OPEN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